

3Q23 Earnings Release Script

8th November, 2023

SM ENTERTAINMENT CO., Ltd.

안녕하십니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CFO 장정민입니다.

금일 당사의 2023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당사의 3분기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 페이지입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한 2,663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한 50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며 3분기 매출액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수익성이 높은 음반/음원 부문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70% 증가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당사의 별도실적과 주요 종속법인별 실적을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 페이지입니다.

먼저 별도 실적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분기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신규 발매 앨범 판매 호조로 871만장의 분기 최대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여 음반/음원 부문 매출이 전년대비 5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분기에 이어 아티스트별 오프라인 콘서트 라인업 확대되며 콘서트 사업 부문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여 분기 최대 매출액을 경신하였습니다.

우선 음반 부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분기에 발매된 신규 앨범 판매량은 871만장으로 전년동기 415만장을 크게 상회하며 분기 최대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NCT DREAM은 정규 3집 'ISTJ'가 432만장 판매되어 또 한번의 커리어하이를 달성하며 쿼드러플 밀리언셀러로 등극하였습니다.

NCT DREAM의 초동 판매량은 365만장으로 전작 대비 약 2.6배 상승하였고, 국내 음반, 음원차트 1위와 음악방송 4관왕을 차지하며 1년새 더욱 강력해진 NCT DREAM의 위상을 실감케 하였습니다.

엑소의 정규 7집 'EXIST'는 7월 발매 이후 190만장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며 2013년 정규 1집 발매 이래로 통산 7번째 밀리언셀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NCT의 정규 4집 'Golden Age'도 100만장이 넘는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여 3연속 밀리언셀러에 등극하였으며, 9월에 데뷔한 신인 보이그룹 라이즈의 첫번째 싱글 'Get A Guitar'는 데뷔 일주일만에 초고속 밀리언셀러에 등극함과 동시에 각종 음원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년 하반기부터 오프라인 콘서트를 재개하였으며 3분기 국내외 콘서트 및 팬미팅을 총 83회 개최하였습니다.

이 중 에스파는 첫번째 월드투어를 진행하였으며, 북미와 아시아, 유럽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18회의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데뷔 후 첫번째 투어였음에도 도쿄돔에 입성하여 해외아티스트 사상 최단 기간 입성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LA를 시작으로 미국, 남미, 유럽 총 14개 도시에서 진행된 투어는 전석 매진되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NCT DREAM의 월드투어가 진행되었으며, 2분기 아시아, 북미 지역에 이어 3분기 남미 투어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팬덤의 확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NCT는 일본 스타디움 투어를 통해 2개 도시에서 4회의 스타디움 공연을 개최, 전 회차 매진으로 총 22만 관객을 동원하며 일본 현지에서의 굳건한 인기를 입증하였습니다.

참고로, 별도 실적으로 반영된 콘서트 매출의 경우 계약상 비율에 따라 콘서트 기획사로부터 분배 받은 금액이며,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서 진행한 전체 콘서트 매출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메일로 송부 드린 팩트북 내 연결 사업부문별 매출 항목에서 콘서트 매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MD/라이선싱 부문 매출도 콘서트 개최에 따른 굿즈 상품 판매 확대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이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77% 증가한 48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분기 최대 앨범 판매량에 힘입어 음반/음원 사업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에스파 월드투어 및 NCT 스타디움 투어 등에 따른 콘서트 매출 상승이 영업이익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5.3%p 증가한 25.4%입니다. 이익 기여도가 높은 음반/음원으로의 매출 비중 확대로 매출 믹스가 개선 및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률 상승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3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속회사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 페이지입니다.

보고계신 자료의 실적은 연결대상회사가 있는 종속법인은 연결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종속법인은 별도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종속법인 합산실적은 내부거래 제거 전 단순 합산실적인 점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단순 합산실적 기준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SM BM 신규 편입과 아티스트 일본활동 확대, 음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SM C&C 주요 고객사의 보수적 마케팅 비용 집행 영향과 키이스트 드라마 사전 제작 완료에 따른 제작비 매출인식 종료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종속법인별로 말씀드리면, 일본 콘서트 및 팬미팅 등 오프라인 이벤트 확대로 SMC와 일본 팬클럽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SMEJ PLUS의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종속법인 중에서는 음반 판매 호조로 음반 인쇄 사업을 영위하는 SM 라이프디자인그룹 또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종속법인 영향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아티스트 일본 활동 확대로 SMC 영업이익은 증가하였으나, 팬클럽 회보 제작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SMEJ Plus는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단순 합산실적 기준 종속법인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3% 감소한 3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4분기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요 신보 및 콘서트 라인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 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 신보 발매 계획입니다.

10월 6일 NCT 127이 정규 5집으로 컴백하며 통산 5번째 밀리언셀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9월 성공적인 데뷔로 화제가 된 라이즈가 10월 27일 싱글을 공개하였으며, 10월 30일 태민의 4번째 미니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11월에는 8일 WayV의 정규 2집, 10일에는 에스파가 미니 4집이, 13일에는 레드벨벳이 정규 3집 앨범 발매가 예정되어 있으며, 태연 미니 앨범과 려욱 싱글도 공개 예정입니다.

12월에는 NCT 127의 싱글과 동방신기 정규 9집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2024년 1분기에도 활발한 신보 발매가 이어집니다.

에스파는 글로벌 활동을 타겟으로 영어 정규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며, 싱글 발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NCT의 경우 NCT DREAM 미니, NCT NEW TEAM 싱글와 일본 싱글, 태용과 텐의 솔로 활동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두 번째 싱글 'Talk Saxy'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라이즈 역시 신보 발매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엑소 수호, 레드벨벳 웬디 등 솔로 아티스트 라인업도 준비 중입니다.

자료 8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콘서트 라인업입니다.

전년 하반기부터 재개된 오프라인 콘서트는 올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국내외 시상식 및 행사 참석 등으로 인하여 콘서트가 집중되어 있던 2, 3분기 보다는 콘서트 횟수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샤이니가 8회의 일본 투어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프리데뷔 싱글을 선보인 NCT NEW TEAM이 일본 전역에서 투어를 진행 예정입니다.

또한, NCT 127이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6회의 공연을 진행하며, 태민과 동방신기도 국내 콘서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다시 콘서트 횟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확정된 콘서트는 샤이니와 NCT 127 아시아투어 및 키 국내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였던 SMTOWN 콘서트가 내년 1분기 일본 도쿄돔에서 이틀 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분기 공연 라인업은 11월 8일 현재 기준이며 향후 개최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 3분기 경영실적 발표 및 하반기 주요 라인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장철혁 대표이사께서 CEO Message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